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 53:1-12)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인간의 본질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 하셨습니다. 이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사 53:2).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오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와는 다른 분이고 너무 높은 분이어서 내 아픔과 상처를 모르실거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를 다 겪으셨고 인간적인 배신의 아픔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아픔과 눈물, 내 좌절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픔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7년이 며칠 같이 느껴졌다고 증거합니다. 사랑에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질고와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God Is Love

(Is. 53:1-12)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Bible says that the essence and existence of God is love. If God is love, the essence of human beings who are created in his own image by God must be lov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son and only one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Jesus Christ, his only one son whom God sent to the world loved us until he was nailed on the cross. Now whoever believes in him, the path of salvation for eternal life will be open for them.

The text of Isaiah 53 is the word of prophesy about Messiah.

The reason why God came in appearance of man to the world is that he loves us.

Jesus came to the world like a tender shoot (Is 53:2). In a very silent way, and with the weak image, he came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If Jesus came as a superstar, people might say, "He is so different from me and so high that he may not know my pain and hardships." Jesus underwent all contempt, hardships, and pains and experienced human betrayal.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yet was without sin" ( Heb 4:15).

The writer of Hebrews proves that because Jesus who underwent the same experience as we have, it is he who knows our weakness. This is the Gospel. Our Jesus knows us. He knows our pain, tears, frustration, and suff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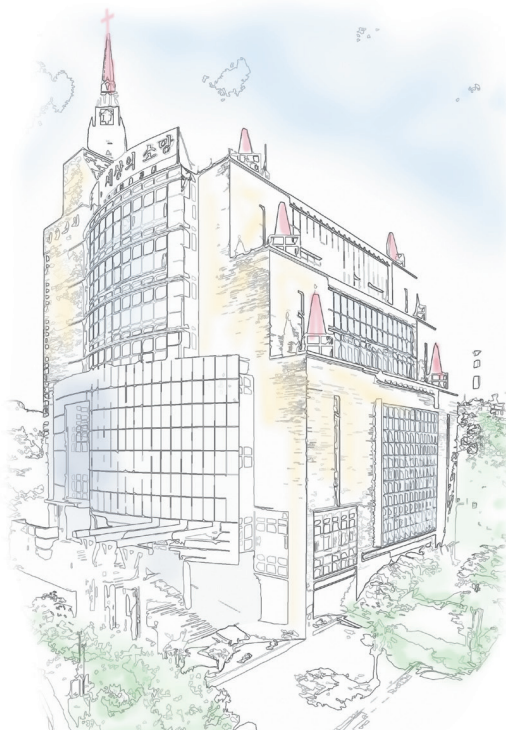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and carried our sorrow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s 53:5).

The fact that Jesus was pierced on the cross and wounded is because of our transgressions, and iniquities. This is the grace of atonement. Even now, the reason why sinners like us walk in faith with desire and joy is the grace of atonement.

In love there is a marvelous power. Jacob proved that he loved Rachel so much that he could feel that his seven-year working as a farmhand was just like a few days. In love there is really mysterious and amazing power.

My beloved Christians,  
If whoever readily dies for someone, he must be a happy man. We can live our life happily as much as we love Jesus Christ.

Jesus Christ came to this world for us and underwent suffering and pain with his blood and guts, and at last he generously poured out his water and blood. Therefore, I hope that you need not hesitate any longer in loving Jesus Christ. By loving Jesus more, by relying on him, and only by living for Jesu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the peopl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1일(월) ~ 26일(토), 오전 5시  
성금요일(3.25)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본당 - 연합다락방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21일(월)부터 3월 26일(토)까지, 오전 5시부터 본당에서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열리는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성금요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하며 금요기도회는 연합다락방으로 오후 8시부터 본당에서 모인다.

##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3월 20일 (주) 찬양예배 시

교구위원회(위원장 : 박두호 장로)는 3월 20일 (주) 찬양예배 시 헌신예배로 드린다.

## 2016년 여름 비전트립팀 파송

파송지 : 방글라데시 다카지역 / 파송일정 : 추후 공지

교회는 지난 3월 9일(수) 정기 당회에서 2016년 여름 비전트립팀 파송을 확정하였다. 파송지는 방글라데시 다카지역으로 이경영 선교사 사역지에서 사역할 예정이다. 비전트립 지도교역자는 조원영 목사가 담당하며 단장으로는 정치는 집사(선교위원회

부서기)가 선정 되었다.

앞으로 있을 팀원 모집과 선교 교육, 파송 과정 및 현지 사역 등 모든 일정이 은혜 안에서 진행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 부탁한다.

##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3월 22일 (화) 오후 7시 30분 / 101호(웨스트민스터 홀)

교육위원회(위원장 : 이강진 장로)는 교육 1,2,3,4 국 전 교사 대상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오는 3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이날 강사는 장신대 목회상담학 이상억 교수로 주제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이다. 교회학교 교사는 전원 참석바란다.



이상억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약 력

-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 (B.A.)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 북음주의 루터교 신학대학원 (M.A.)
-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Th.M., Ph.D.)

##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 교사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오늘 찬양예배시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 (회장 : 우상태 집사) 교사 헌신예배로 드린다.

## 찬양대원세미나

4월 12일(화), 오후 7시30분

찬양대원 세미나가 '찬양대의 본질과 사명(사 43:21)'이라는 주제로 4월 12일(화), 오후 7시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하재송 목사(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가 선다.

모든 찬양대원 및 그레이스 핸드벨, 아멘관현악단 대원 모두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강사 하재송 목사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약 력



하재송 교수 (총신대학교)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 총신대 교회음악과
-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교회음악석사, 음악박사)
- 전)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강사 및 겸임교수 역임
- 현) 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
- 현) 서현교회 협동목사
- 현) HIM Chamber Choir 상임지휘자

##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 크리스찬과 생활 - 크리스찬의 결혼관 -

(창 2:18-35)

결혼 제도는 인간의 편리에 의한 수단이나 인간이 고안해 낸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기본적인 요소로서 설정하신 것으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혼제도, 국가제도, 교회제도 등 세 가지 요소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중에 가정은 사회의 심장부이고 결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혼제도는 모든 제도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이 짧은 성구에서 우리는 결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성경적 결혼관은 어떤 것인가?

#### (1) 사명 감당을 위한 결혼

가정은 '인류 최초의 교회, 인류 최초의 학교, 인류 최초의 국가'라고 불린다.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추구하는 지혜의 근본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 있는 가정은 국가의 소임을 할 수 있다. 자녀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과 질서를 배우고 상선별 악을 배운다. 따라서 교회, 국가, 학교로서의 가정은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 (2) 아내를 돕는 배필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그 앞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은 '거울'을 의미하기도 한다. 거울이 그 앞의 물체를 반영하듯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반영시키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면서 동시에 남자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 (3) 삶의 구조로서의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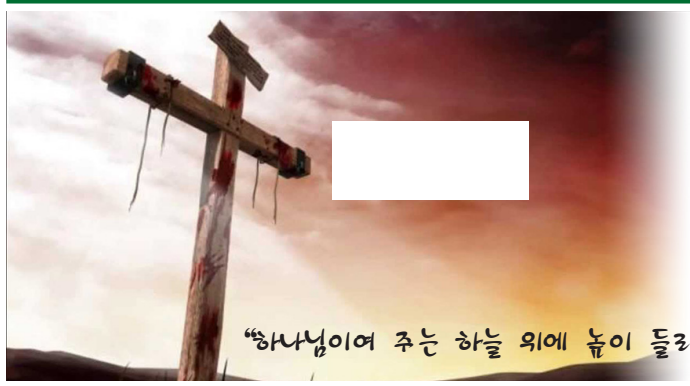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내 뼈 중의 뼈'라고 한 말은 삶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뼈는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몸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존재 구조가 바로 여자의 존재

구조라고 한 것이다. 또 '살 중의 살'이라고 한 것은 남자의 삶이 곧 그 여자의 삶이라는 뜻이라 다시 말해서 여자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을 성취시키려면 신앙과 문화와 삶의 목적이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에덴동산에서 설정된 결혼제도를 바울은 에베소서 5:31, 32에서 '큰 신비'라고 부르며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보았다. 신부 되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 또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신실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가정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한 까닭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중세기의 윤리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윤리요 교훈이다.

결혼을 앞둔 이들이 있다면 남자는 먼저 자신이 가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왕과 제사장 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 여자는 남자를 도와 사랑하고 순종하며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함께 잘 이루어나가기로 소원하며 자신의 영적 성숙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 계속)



# Via Dolorosa

예수님!  
이 어둠의 시간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 57:5)

## 자녀를 위한 기도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다  
(시 34:11)

## 연약한 어미의 기도



박혜정3 집사  
(13교구)

18년 전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물론이요 일가친척들까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생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입을 치르게 되는 고 3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아이를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지만, 연약한 어미의 마음은 세상적인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아이의 진로를 부모의 욕심대로 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염려

가 있습니다. 올 1년간 모의고사와 시험 성적에 아이나 엄마가 일희일비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여 이 아이가 대입에 실패하여 낙담하면 어찌할까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아이보다 어미인 내가 더 낙담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로 고3담임 직분을 맡으면서 가슴아팠던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아침 출근길에 자소서 준비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며 고민했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등교한다며 기도를 부탁하는 제자의 문자 메시지에 가슴이 메어지며 답답하여 퇴근 후 교회로 달려가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왔



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아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며 올 한 해를 잘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에 빛진 자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아이를 위하여 연약한 어미는 오늘도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이상한 아빠



임태훈 집사  
(12교구)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사랑의 서약을 한지는 2870일, 주님의 소중한 자녀인 준수와 눈을 맞춘 지는 무려 2538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자녀는 초등학교를 스스로 등교 할 만큼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의 경건한 마음가짐과 이에 걸맞는 언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 이라고 선불리 생각했던 저는 가끔 좋은 아빠, 간혹 나쁜 아빠, 때때로 이상한 아빠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부와 명예가 있지 않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가끔은 좋은 아빠입니다. 하지만 간혹 부의 중요성을 과하게 강조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하하기도 하는 나쁜 아빠이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기도 하고, 고집과 탐욕을 내 놓지 못하는 이상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매일 밤 행복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가끔 좋고, 간혹 나쁘고, 때때로 이상한 아빠 곁에서 우리 아들이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 2장 40절 말씀처럼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서 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준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과 모든 분들께서 주신 사랑과 감사의 마음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고 베풀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좋은 아빠로만 거듭 나기를 준수의 입학에 기대어 소망해 봅니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 초등부

# 10월 성경암송대회 준비 시작!



우선경 집사 (초등부 교사)

초등부에서는 매년 10월 실시하는 성경암송대회를 위하여 연초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반별로 4월까지 긴 성경암송구절을 한주에 한 절씩 외우게 하여 친구들 앞에 나와 발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렵다는

성경암송을 떨치 않고 자신 있게 외우게 합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암송 팀을 운영합니다. 이때는 담당선생님들과 3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따로 연습을 합니다. 서로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암송 팀이 꾸러지면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 약 6개월 정도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며 외우게 합니다. 매주 처음부터 외워야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정말 잘 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랑스런 아이들의 힘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늘 칭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는 암송선생님들,



갓다며 찾아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사인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힘이 났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서울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일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암송 반 친구들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올해는 기세현, 김민정, 한동주 선생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많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전체범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출전을 해보았거나 암송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모든 암송범위를 혼자 외우도록 합니다. 매년 성경암송대회를 성실히 준비하여 팀으로 출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출전을 하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17일(목)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연합회 여호수야회 21주년 감사예배 설교한다. 18일(금)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공동회장단 모임을 소집한다.19일(토) 한국장로교신학회 신학발표회 축도를 한다.

■ 득남 : 11교구 감상원 집사 황인숙 성도 (김현영 집사, 최현인 권사 장남 가정)

■ 출간: 1교구 조순엽 은퇴권사 『삶의 뒤안길에서 부르는 노래』, 도서출판 비움과 채움

■ 출간: 16교구 정은경 집사 『좋은 선택을 이끄는 엄마, 코칭맘』 라온북 간행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 선교회 (3.13) 안드레·빌립 선교회(3.20)

■ 금주의 식사 제공 : 홍일성 장로 이명아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빌립선교회

# 주님의 일하기 좋은 30대!



한대석 집사 (빌립선교회 회장)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2016년 빌립선교회 회장을 맡을 한대석 집사입니다.

30대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30대가 되면서 쓰임을 받은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구요!

빌립선교회는 건장한 30대 남성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모여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30대 남성들은 너무나 바빠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원부터 과장으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집에서는 이제 갓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어려 부모님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중에 모이던 전통을 과감히 버리고 주일에 선교회 모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30대 남성 성도 여러분! 그리고 30대 남편을 가장으로 두신 여성 성도 여러분!

2016년 주님의 일을 하기 가장 좋은 이 때에 선교회 모임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16년 첫 모임은 3월 20일 (주일) 오후 12시 50분에 9층 카페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도르가 전도회의 위킹맘 모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선교회, 전도회 모임에 참석치 못하셨던 우리 30대 여러분!

오는 3월 20일 9층 카페에서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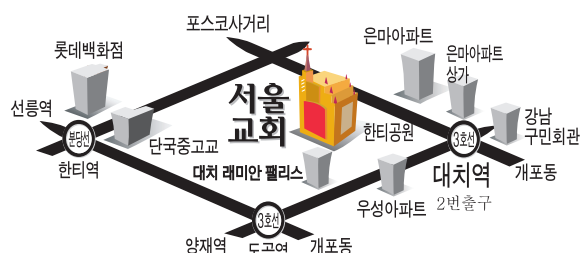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깊은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2. 3월 15일(화) 모이는 제32회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를 통하여 군복음화의 꿈을 함께 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3.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심령들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분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